

열왕기상 19. 호렘산으로 피신한 ‘엘리야’ (왕상 19:1-21)

들어가기

본 장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과 갈멜산에서 멋진 싸움을 벌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선포한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협박을 받고 급히 광야로 도망친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광야에서 탈진한 상태로 쓰러져 있던 ‘엘리야’를 위해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먹이시고, 새 힘을 얻어 호렘산까지 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호렘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3 가지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1. ‘이세벨’의 위협을 피해 광야로 도망간 ‘엘리야’ (1-8 절)

1) 갈멜산의 기적을 체험한 ‘아합’ 왕은 아내 ‘이세벨’에게 그 모든 일을 알렸습니다. (1-2 절)

- 1 절 마지막의 ‘이세벨에게 말하니’란 말은 ‘나가드’ 라는 말로 ‘~을 알리고 고하다’는 뜻!
 - 곧 평소 ‘아합’ 왕이 모든 일을 ‘이세벨’에게 알리며 그녀의 조언을 따랐음을 알 수 있음!
- 그럼 갈멜산의 소식을 들은 ‘이세벨’ 여왕은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2 절)
 - ①. 즉시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냈음.
 - ②. 내일 이맘때가 되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전함!
 - ③. 만일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의 벌을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맹세함!
 - 참고로 ‘엘리야’는 하나님 한 분만을 두고 맹세! But, ‘이세벨’은 신들을 두고 맹세함!
 - 그럼 ‘이세벨’이 맹세한 신들 중에는 누가 진짜 신이고, 누가 더 센 신일까?
 - => 결국 그녀의 말 자체가 모순!!
- 여기서 궁금한 것 한가지
 - 당시 ‘이세벨’은 즉시 군사를 보내어 ‘엘리야’를 처단할 수도 있었는데, 왜 굳이 사신을 먼저 보내어 내일 이맘때까지 ‘엘리야’를 죽일 것이라고 알렸을까?

2)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즉시 사환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3-5 절)

- 우선 3 절 첫 부분의 ‘형편을 보고’란 말은 원어로는 ‘라아’ 곧 ‘바라보다’는 뜻.
 - 그런데 여러 성경은 이 말을 문맥상 의미와 연결시켜, ‘두려워 떨며’로 번역했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RSV, CEV, etc.)
- 바로 다음 구절들이 위와 같은 번역을 지지해 줌!
 - ①. ‘엘리야’가 ‘자기 생명을 위하여 도망함’
 - ②. ‘브엘세바’까지 도망함
 - 참고로 ‘브엘세바’는 팔레스타인 최남단 지역으로 당시 남유다의 남쪽 국경지대였음.
 - 곧 ‘이세벨’ 여왕의 권세가 쉽게 미칠 수 없는 남유다의 최남단 지역까지 도망한 것!
 - ③. 거기서 혼자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을 더 걸어 한 로렘나무 아래서 죽기를 청함.

➤ 특별히 4 절 후반부의 ‘엘리야’의 고백을 주목!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①. ‘넉넉하오니’란 말은 '라브' 곧 '충분하다, Enough' 라는 뜻으로, 희망을 상실하고 체념한 상태를 표현한 말

- 그래서 몇몇 성경에서는 이 말을 직접적으로 "이제 다 끝났사오니" 라고도 번역했음!

②.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의 '낫다'란 말은 '토브'란 말로 '선하다, 좋다'라는 뜻!

- 곧 당시 ‘엘리야’는 자신이 조상들에 비해 ‘선하지도, 좋지도 않은 ‘못난 사람’이라고 자신을 비하하며 절망하고 있었음!

③. 그러므로 ‘이세벨’이 자신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주시길 요청!

3) 여기서 우리는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한 성정을 가진 인간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 어제까지만 해도 불의 선지자로서 ‘아합’ 왕을 비롯한 모든 대적들을 떨게 했던 ‘엘리야’가 ‘이세벨’ 여왕의 말 한마디에 크게 두려움을 느끼며, 황급히 도망가 죽기를 청하는 모습은 참으로 아이로니컬(ironical)한 모습이 아닐 수 없음!

▪ 결국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의 권능을 힘입어 큰 기적과 역사를 이루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요,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살아야 할 사람들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늘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할 것!

4) 이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쓰러진 ‘엘리야’를 위로하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6-8 절)

①. 쓰러진 ‘엘리야’를 ‘어루만지며’ 깨워주심!

- ‘어루만지며’에 해당하는 '나가'는 하나님의 특별한 어루만지심을 나타낼 때 사용됨!

- 예: 다니엘 8:18 -> 잠든 다니엘을 천가가 어루만져 깨운 뒤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줌!

- 곧 낙심한 ‘엘리야’의 마음과 영혼을 특별한 어루만지심으로 만지시며 격려하여 주심!

②.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을 두 차례 가져다 주심!

- 연약한 육신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며, 기력을 되찾고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

③. 가야 할 길과 방향을 다시금 생각하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심!

- 7 절 후반부를 주목!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 학자들은 ‘갈 길을 다 가지 못한다’는 말로 보아, 당시 ‘엘리야’가 광야까지 내려온 것은 그저 ‘이세벨’의 위협만을 피하여 도망친 것만은 아니라고 해석!

- 곧 분명한 목적지, 호렙산을 가기 위해 내려 왔다는 것!

- 그런데 그 호렙산을 향해 광야에서 하룻길을 걷다 지쳐 쓰러진 ‘엘리야’는 로렘나무 아래에서 급격히 절망하며 생을 포기하고자 하는 상황까지 처했다는 것!!

5) ‘엘리야’는 천사가 준비해 준 음식을 먹고 기력을 되찾은 뒤에 _____일 밤낮을 쉬지 않고 걸어 하나님의 산 ‘_____’에 도착하였습니다. (8 절)

- 하나님의 산 호렘 (Mount Horeb)
 -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밑에서 장막을 쳤고, 모세는 이 산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음!
 - ‘호렘산’의 다른 이름은 ‘시내산 (Mount Sinai)’
 - 정확한 위치는 모름! / 단지 오늘날의 ‘예벨 무사 (Jebel Musa)’ 가 아닐까? 추정.
- 40 일 밤낮을 쉬지 않고 걸음!
 - ①. ‘브엘세바’에서 ‘호렘산’까지는 약 350km 로 정상적인 걸음으로 걸으며 10 일이면 도착!
 - ②. 따라서 40 일을 밤낮으로 걸었다는 것은 단순히 행진만 한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도도 하고, 때로는 묵상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걸었다고 보아야 할 것!
 - ①. 참고로 ‘엘리야’가 걸은 광야의 40 일은 모세와 예수님을 연상케 함! (신 9:18, 마 4:2)
 -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40 일 동안 호렘산에서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
 - 예수님도 광야에서 40 일 동안 자신의 사역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금식하며 기도!
 - 따라서 당시 ‘엘리야’도 모세처럼 갈멜산의 큰 승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없음을 보면서, 백성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며 걸었을 것!

2. 호렘산에 도착한 ‘엘리야’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며 3 가지 계시를 받았습니다. (9-21 절)

1)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고 물으셨습니다. (9 절)

- 이 말을 원어로 직역하면, ‘마 렉카 포’ 곧 '무엇이 너를 여기 있게 하느냐?' 란 질문!
 - 공동 번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이 말을 ‘What are you doing here?’ (NIV, RSV, Living Bible, etc.) 라고 번역함!
 - 곧 이것은 새로운 사실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적 각성을 촉구하시는 질문임!

2) 이 질문에 ‘엘리야’는 무엇이라고 답했는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이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0 절)

- ①. ‘열심이 유별하오니’ 라는 말은 ‘칸느 키느티’ 라는 말로, '카나' 곧 ‘질투’가 두 번이나 반복된 말! -> 따라서 '질투하고 질투하더니'라는 의미!
 - 곧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엘리야’가 보면서, 심히 분노하고 질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②. ‘오직 나만 남았거늘’ 란 말도 원문을 보면 '오직 나! 나만! 남았다'로 반복해서 표현됨!

- 특별히 이때 ‘나만’에 해당하는 단어 ‘바드’는 ‘분리되어 고립되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
- 따라서 당시 ‘엘리야’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질투하는 사람이 오직 자신만 남았고, 그로 인해 자신은 철저히 사람들에게서 분리되고 고립된 상태에 있다고 생각하며 힘들어함!

3) 이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밖으로 데리고 나와 하나님의 산에 세우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직접체험 하게 하셨습니다. (11-12 절)

①. ‘밖으로 나가 여호와 앞에 서라’고 명하심!

- 이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엘리야’의 주목해서 보라고 촉구하신 것!

②. (‘엘리야’ 앞을) ‘여호와께서 지나가심!

- '지나가다'는 말의 '아바르'는 분명한 움직임을 나타내는 단어!
- 그 움직임은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로 나타남!
- > 그러나 그 어느 것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았음!

③. 그 후 세미한 소리가 들림!

- ‘세미한’에 해당하는 '데마마 다카'란 말은 '고요하다'와 '굽다'가 결합된 단어.
- 곧 강한 바람과 지진과 불이 있던 후 아주 섬세하고 고요한 소리 곧 음성이 들렸음!

➤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 것 한가지! -> 13 절 첫 부분의 ‘엘리야’의 반응! ‘엘리야가 듣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①. 우선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는 ‘엘리야’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고 취한 행동!

-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인간은 살 수 없기에 ‘엘리야’는 겹옷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림!
- 참고로 출애굽기 33 장 20 절 이하를 보면, 모세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모세를 가리우셨음!

②. 그런데! 이때 ‘엘리야’는 바람과 지진, 불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고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얼굴을 가렸다는 것!!

- 곧 강한 바람과 지진, 불은 표적을 구하는 이들에게는 엄청난 증거임에는 분명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그런 외적인 표적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는 내적인 변화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

(갈멜산의 기적을 생각해 보고, 5000 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자!)

- 따라서 오늘 우리도 성경을 통해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음성에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려고 늘 노력하자!

4) 겹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서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왜 여기 있느냐?’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13-14 절)

▪ 이때 ‘엘리야’는 10 절과 똑 같은 대답을 하면서 여전히 부정적으로 답했음!

- 곧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분명하게 체험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과 절망의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5) 하나님은 이런 ‘엘리야’의 마음을 격려하시면서, 3 가지 새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15-18 절)

- ①. 우선 ‘네 길을 돌이키라고’ 말씀하심!
 - 이 말은 단순히 왔던 길로 되돌아가라는 말이 아니라, 실망하고 절망한 ‘엘리야’의 마음을 돌이켜서 새로운 사명을 받고 감당하라고 격려하신 것!
- ②.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으로 삼을 것!
 - ‘하사엘’은 ‘아람’ 왕 ‘벤하닷’의 군대장관이었는데, ‘벤하닷’을 죽이고 왕위에 올라 졸군 이스라엘을 공격하며 괴롭힌 왕! (왕하 8:13-29;13:1-3)
 - 따라서 하나님은 ‘하사엘’을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채찍으로 사용하실 것을 ‘엘리야’에게 알게 하신 것!.
- ③.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것!
 - 우선 ‘예후’는 ‘님시’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임! (‘님시’의 아들은 ‘여호사밧’! / 왕하 9:2).
 - 따라서 본 절은 잘못된 번역 -> 이런 오류는 히브리어 ‘벤’ 곧 ‘아들’이 ‘자손’을 의미하기도 하기에 일어나는 실수임.
 -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장관으로써 훗날 라못 길르앗 출정시 반란을 일으켜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는데, 이때 ‘아합’ 왕의 가문을 무자비하게 학살하여 진멸 시킴!
- ④. ‘아벨므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로 세울 것!
 - ‘아벨므홀라’는 ‘춤추는 초장’이란 뜻으로, 정확한 위치가 어딘지는 알려지지 않음.
 - ‘엘리사’란 이름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
 - 그의 아버지 ‘사밧’은 당시 열 두 겨리의 소를 가지고 농사를 짓던 그 지역에서는 나름 상당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측!
 - 그런데 ‘엘리사’는 ‘엘리야’를 통해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포기하고 즉시 ‘엘리야’를 따랐음!

6)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 명을 남기실 것이라고 ‘엘리야’에 말씀하시며 격려하셨습니다. (17-18 절)

- 우선 17 절,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는 말씀은 학자들간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
 - 그러나 공통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
- 특별히 18 절의 ‘7000 명을 남기리니’ 라는 말씀을 주목!
 - 우선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리 타락한 시대라 하여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공동체를 세워가는 하나님께서 남기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려고 노력해야 할 것!

- 특별히 많은 학자들이 본문에 기록된 7000 명을 단순히 숫자 7000 으로 해석하기 보단 완전수인 7 의 배수로 생각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지키고 세워갈 충분한 숫자를 이스라엘에 남기실 것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함!

7) 하나님께 새로운 사명을 받은 ‘엘리야’는 즉시 ‘엘리사’를 찾아가 그를 자신의 뒤를 이을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19-21 절)

- 당시 ‘엘리사’는 열 두 거리의 소를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음!
 - 한 '거리'는 두 마리의 소가 한 멩에를 매고 밭을 가는 것을 말함!
 - 따라서 열 두 거리의 소는 24 마리의 소를 의미함.
(참고로 어떤 학자들은 거리를 토지의 단위로 계산하기도 함)
 - 곧 당시 그 밭에는 같이 밭을 가는 다른 사람들도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음.
 - 이때 ‘엘리사’는 마지막 열 두 번째 거리의 소들을 이끌고 밭을 갈고 있었음!

- 이때 ‘엘리야’는 자신의 겂옷을 ‘엘리사’에게 던짐!
 - 보통 겂옷은 그 사람의 직무를 나타내는 역할을 함.
 - 그런데 당시 ‘엘리야’의 경우는 그의 외모와 복장이 이미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음!
 - 곧 ‘엘리사’는 ‘엘리야’를 알아보았을 것 + ‘엘리야’가 자신에게 던진 겂옷을 받았을 때, 이것이 자신을 부르는 상징적인 행동임을 깨달았을 것! (Hammond, Keil & Delitzsch)

- 그러자 ‘엘리사’는 즉시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 달려가 자신의 부모와 입맞추고 작별한 뒤, ‘엘리야’를 따르겠다고 부탁함!
 - 당시 ‘엘리사’는 자신의 부르심을 즉시 깨닫고 즉각적으로 응답했음!
 -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소명자들이 보이는 공통된 특징임!

- 이에 ‘엘리야’는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라고 말하면서, ‘엘리사’가 가족들과 작별인사를 하고 자신을 따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음!
 -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가 한 말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문맥상으로 볼 때 ‘아무런 문제도 안 된다’는 식으로 ‘엘리야’가 허락해 준 말로 해석!

- 이후 ‘엘리사’는 소 두 마리를 잡고, 그 소들이 끌던 농기구를 불살라 고기를 삶아 백성들과 나누며 마지막 작별 잔치를 가진 뒤, ‘엘리야’를 따랐음!
 - 소를 잡고, 농기구를 불살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전적인 헌신과 결단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

4. 오늘 내용을 통해 새롭게 깨닫거나 결심한 내용이 있다면?

5. 중보기도 나눔